

LG產電(株) 윈도95용 전력감시제어반 개발

LG產電(株)(代表 : 李鍾秀)는 윈도95용 전력감시제어반을 개발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

전력감시제어반(Power Monitoring System)이란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형화, 대용량화 되어가는 전력계통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중앙 감시반에서 개인용컴퓨터를 사용하여 제어,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개발한 윈도95용 전력감시제어반은 기존의 도스(DOS)상태에서는 운용할 수 없었던 멀티타스킹(Multi-Tasking) 기능과 실시간(Real-Time)데이터 관리기능, 각종 자료를 통한 그래픽 처리기능 등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멀티타스킹(Multi-Tasking)이란 현재 제어하고 있는 여러개의 전력계통을 한 개의 화면을 통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존의 도스상태에서 여러화면을 오가는 불편을 해소했고,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상황을 사무실에서 동시에 볼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 관리기능으로 시간을 다투는 전력계통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 및 조치가 가능하며, 각종 데이터의 관리 및 저장을 통하여 월별·일별·시간별 전력사용실적 그래프 등 각종 그래픽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하절기등 전력사용이 급증할때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전력이 넘지않도록 전력사용을 조절하여 설정된 값에 이르면 부여된 우선순위에 따라 전력을 차단하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력계통의 보안성 때문에 비밀취급인가증과 같은 3단계의 운용자 등록권한과 시스템 잠금장치를 채택하여 외부인의 오조작에 의한 시스템의 안전 및 보안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력계통의 주변기기(조명용 제어기기, PLC 등)와 인터페이스(Interface)가 가능하여 기존의 배전반과 분리운영하던 불편을 해소하였고, 전력계통의

이상유무를 색깔로 표시하여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현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한편 LG산전은 이번 전력감시제어반의 개발로 그동안 소홀히 여겨왔던 소프트웨어개발에도 적극참여하여 좀더 사용이 편리한 제품개발은 물론 약 30억원에 이르는 전력감시제어반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大韓電線(株), 전력기기공장 ISO 9001 인증획득

大韓電線(株)(代表 : 兪彩濬)의 시흥 전력기기공장이 영국의 국제품질인증기관인 SGS YARSLY ICS로부터 ISO 인증을 위한 최종 심사를 받고 전력기기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각종 케이블접속자재 및 초고압 절연제품)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대한전선은 안양공장, 시흥 전선공장, 시흥 계전공장, 안산공장에 이어 전력기기공장도 ISO 9001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생산되는 모든 케이블은 물론 케이블을 연결시켜 주는 접속자재들과 초고압 케이블의 절연제품에 대해서도 국제 품질규격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특히 전력기기공장의 이번 ISO 9001 인증 획득은 동일 업계에서는 최초로 케이블류의 접속과 절연등에 필요한 내부구성재까지도 완벽한 품질을 보증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대한전선의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한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여타 공장과 마찬가지로 외부 컨설팅기관의 도움없이 자체 능력으로 ISO 인증을 획득해 더욱 의미가 있다.

ISO 9001 인증은 개발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및 서비스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품질보증 시스템을 요구하는 규격으로 해당제품에 대한 자체적인 개발 및 설계능력을 갖춘 사업장만이 취득할 수 있는 품질보증 규격이다.

高麗重電機工業(株) 통상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

高麗重電機工業(株)(代表 : 高峯華)는 지난달 개최된 전기조합정기총회에서 그동안 기술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전기기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통상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동사는 자체 설계 및 기술개발로 국내 최초의 영구자석발전기(PMG)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 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전개, 발전기 기술개발에 앞장선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 수상을 하게 되었다.

1985년 고려특수교역으로 창업, 87년에 법인으로 전환한 동사는 인화단결, 창의개발, 근검절약 이란 사훈아래 전 직원이 한가족이 되어 회사 발전에 총력을 다하여 발전을 계속한 바 그해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94년 경기도 파주에 자가공장을 준공하였으며 '95년 고려중전기공업(주)로 상호변경하여 발전기 전문 제조업으로 도약하였다.

또한 '91년 산업기술개발자금(구 공업발전기금) 1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92년부터 '95년까지 자체 기술로 영구자석발전기(PMG) 개발에 성공, 약 5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는 등 매년 높은 신장률로 현재 55억원의 매출규모를 갖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고려중전기는 WTO 출범과 함께 오직 기술개발만이 무한경쟁속에서 살아남는 길이라 생각하며 중소기업체로서는 드물게 전 업무에 대한 전산화로 경영정보 시스템을 구축 과함한 설비투자 와 부단한 노력으로 동 분야에 국제품질인증(KSA /ISO 9002) 획득 등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大成電線(株), 比 전력케이블 공사 수주

大成電線(株)(代表 : 梁始伯)가 코오롱상사와 전략적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해 8월 15일부터 세계 유수의 전력케이블 업체와 응찰경쟁 끝에 마닐라 전력청으로부터 송·배전용 전력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3천만 달러에 최종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내 전선제조업체인 대성전선이 전선공급을 맡게 되고 오는 6월부터 98년 12월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인데 이번에 계약한 프로젝트는 국내업계의 해외 전력케이블 수주사 상 최대규모로필리핀 전력 전력화사업의 일환으로서 마닐라지역에 설치되는 전력 케이블을 공급하게 된 것이다.

한편 양사는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기점으로 필리핀 전력케이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 올 상반기중 2천만달러 규모의 필리핀 남부 지역 프로젝트 입찰에도 참가하는등 동남아 시장에서 전력 케이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寶星重電機(株), 전선 접속삽입량 검출기 개발

寶星重電機(株)(代表 : 林都洙)가 국내 송·배전선로 건설시공 품질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선접속삽입량 검출기를 개발했다.

寶星重電機가 일본의 아사히電機와 기술제휴를 맺고 개발한 전선 접속삽입량 검출기는 각종 송·배전선로 공사에서 ACSR전선접속시 슬라이브에 전선이 적절하게 투입되어 양호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출하는 기기로서 송·배전선로의 전선탈락, 단선 등 중대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MR·YOUNG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 기기는 무게가 약 4kg정도로 손가방에 포장되어 있어 현장에서 휴대·운반·사용하는데 대단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또 각종 전자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1백50여가지의 작업결과를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억, 보관, 재생할 수 있는 최신기능까지 보유, 앞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원업체 KS 표시 허가 획득

업 체 명	규격번호	규 격 명	종류·등급 또는 호칭
현대중공업(주)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교류 460V, 15A~100A, 10KA 교류 600V, 125A~225A, 7.5KA
대성전선(주)	KS C 3325 KS C 3611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KIV 8mm ² 600V CV 원형 압축 연선 단심 8.0mm ² ~500mm ² (12종) 다심 8.0mm ² ~325mm ² (10종)